

자금난 중소벤처기업 숨통 트인다

중진공 '스케일업 금융' 도입...1천억 예산 5천억 지원 효과 호남 전기차 스마트공장배움터...광주·전남 이달 예산 배정 미국·중국 등에 글로벌혁신성장센터 설치로 세계 진출 기대

그동안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벤처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기업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해 부담을 덜어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해외거점도 마련된다.

17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흥선)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스케일업 금융'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스케일업(scale-up) 금융 제도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

등을 기초로 구조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여준다는 구상이다. 공단이 20% 내외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약 5배의 재정 승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올해 1000억원의 예산으로 5000억원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한 기업당 최대 150억원으로, 150여개 기업을 만기 3년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아마존웹퍼스와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코스트코 등이 위치한 미국의 시애틀과 중국의 중관춘 등 글로벌 혁신거점에 '글로벌혁신성장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현지에 입주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 32억원을 투입하

겠다는 계획이다.

세계적 혁신허브 내에 형성돼 있는 혁신성장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해외투자는 물론, 디자인과 기술사업화 등 기술혁신, 해외마케팅 등 수출보육,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등 입체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4개국 22개 수출인큐베이터를 코워킹(co-working) 개방형 공간으로 재편,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16개 중진공 기업인력센터를 통해 청년장병 일자리 매칭과 취업희망버스열차 등을 운영해 청년과 중소벤처기업간 맞춤형 취업지원도 펼친다.

취업컨설팅을 통해 청년장병 및 청년구직자 취업컨설팅 실시하고,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직무교육도 펼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호남지역에 스마트공장배움터도 신설된다.

공단은 기존 경기도 안산에 있는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호남에는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LoT(사물인터넷)와 센서 키트(ki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중소기업 현장인력이 실습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설치한다. 또 영남역시드론 산업과 관련한 스마트공장을 설치하는 등 2개소를 신설, 올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에 필수적인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8000명 양성에 나선다.

스케일업 금융 지원제도와 글로벌혁신성장센터 등 신규예산의 광주·전남지역 예산 배정을 이달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선 본부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관명이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되는 만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며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더 많은 준비와 노력 필요한 2019년 창업시장

"이제부터가 진짜 실력입니다."

며칠 전 모그룹 부회장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의 조정과정은 필수이고 그 와중에 살아남으려면 진짜 실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창업에서 운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말이고 대개의 예비창업자들의 경우에는 진짜 실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인터넷 검색 하나로 온갖 정보와 노하우를 접하고 확보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간다. 바꾸어 말하면 예비창업자가 창업 이후에 경쟁해야 할 기존 자영업자나 신규 창업자들의 내용과 경쟁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만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내용과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 창업을 하는 것이 생존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2019년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은 과연 어떤 것들에 대한 준비를 우선적으로 철저해야 할 것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번째는 자신의 역량강화다. 자신이 준비하는 창업아이템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잘 모르면서 하는 창업이 아닌 너무나 잘 아는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동종업소에서 최소 1-3개월 이상의 실전형 실습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예전에 외식업 창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창업자는 매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만 쌓으면 됐지만 요즘은 창의적인 운영역량과 직원 관리,接客 및 고객관리 역량 그리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까지 체득한 이후에 창업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창업교육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역량강화 및 멘토형 아군들의 확보도 중요하다.

두번째는 고객 흡입력을 높이는 차별화 요소들의 개발이다. 요즘은 '차별화 경쟁'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장실에 붙이는 아주 작은 문구 하나조차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는 세상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벤치마킹과 직접 개발방식을 병행하여 상호-메뉴-시설-서비스-직원-이벤트-고객관리-홍보마케팅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차별화 요소들을 개발하여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전략들을 우선 준비해야 한다. 차별화 요소들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미미하게 창업에 하게 되면 경쟁자들에게 너무나 쉽게 함락당하고 만다.

세번째는 점포의 상권과 입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분석과정을 통한 선정이 필수다. 빈 점포들이 워낙 많아서 어찌 보면 점포의 선택지는 넓어졌지만 그만큼 넓은 지역의 상권이 황폐화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에 중개업소의 추천만을 믿고 점포를 선택하기 보다는 본인이 직접 임대료나 온 점포들의 상권과 입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가장 안정적인 점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조사, 분석에서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동종의 다양한 현직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네번째는 운영예산의 확보에 관한 부분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손익분기점 돌파시점이 빨라서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예비 운영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창업을 하는 것을 권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손익분기점 돌파시점이 늦어져서 12개월 정도의 예비 운영예산의 확보를 권하고 싶다. 다섯번째는 역량있는 경력직원의 구인이다. 최저임금제의 영향으로 최소 인원이 필요하기에 가성비 높은 동종업종의 역량있는 경력직원이 필요하다. 여섯번째는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이다. 요즘 점포형 창업에서도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 급부상할 만큼 홍보마케팅의 비중이 커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중기 광주전남본부 호남 중기인 신년인사회

21일 DJ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동석)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4층에서 '2019 호남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계인사와 지역 중소기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동석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2019년을 맞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 될 것이다"며 "기해년의 힘찬 도약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이번 신년인사회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문의는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화(062-955-9966)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인터넷진흥원 '창업 초기 기업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최근 3년 기술 유출 피해 3천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석환)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중소기업이 창업 단계부터 사이버 보안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액은 30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터넷진흥원은 창업 초기 기업의 피해를 막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창업 단계별 정보보호 점검 항목 ▲실제 정보보호 침해사고 사례 및 예방법 ▲실무자에게 유용한 정보보호 사이트 등 국내 중소기업이 창업 준비 및 운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안내사항이 포함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KISA 누리집(www.kisa.or.kr)에서 내려 받거나 또는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책자)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화수 인터넷진흥원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장은 "인터넷진흥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힘써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창업 선배 노하우 생생 전달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기업 경영혁신 멘토링

창업 선배들의 노하우와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배우는 건 예비 창업자들의 생존력을 높이는 최고의 비결이다.

동강대창업보육센터가 최근 산학협력관 교육실에서 개최한 '2018년 하반기 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기업 경영혁신 워크숍 및 멘토링'은 선배 CEO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후배 창업자들은 다양한 경영 사례를 배우는 생생의 자리였다.

행사에는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 기업을 비롯해 정부지원 및 산학협력기술통계개발사업 선정 업체, 청년창조기업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 업체 등

이 참여, 프레젠테이션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선배 창업자들은 아이템 개발 뿐 아니라 ▲1인 창조기업 ▲해외·글로벌 마케팅 ▲기업 및 제품 M&A 활용 ▲고용우수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후속 지원 사업 ▲시설 투자 공방 등록 등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동강대 창업보육센터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등 기관별 창업지원 정책 설명회를 결집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홍윤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무작정 풍덩하라

워터걸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

CHANNEL